

한국 최초의 스님 사진에 관한 고찰

- 이동인과 화계사 스님 사진 -

한상길*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개화운동가 이동인 사진에 대한 오해
- III. 한국 최초의 스님 사진, 화계사 스님들
- IV. 맺음말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9-45.

한글요약

이 글은 두 장의 사진을 통해 한국 근대불교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화승 이동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이다. 최근 이 사진의 원본이 1933년 이후에 발간한 사진엽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사진은 사진엽서에서 인물 부분만을 남기고, 엽서라는 사실을 전하는 하단의 설명문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이 사진은 마치 진영 사진처럼 남게 되었다. 이동인의 행장과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사진엽서의 모델로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의 활동을 검토하고, 사진엽서를 분석하여 사진의 인물은 이동인이 아닌 1930년대의 스님임을 자세히 규명하였다.

두 번째는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 1884년 2월 23일에 촬영한 <화계사의 스님들> 사진이다. 현전하는 한국 최초의 스님 사진으로 추정한다. 퍼시벌은 조선 기행문을 모아 1885년 미국에서 단행본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는 이 사진이 수록되지 않았다. 2001년 이 책의 우리말 번역본이 출간되었는데, 원본에 없는 여러 장의 사진을 추가하면서도 역시 <화계사의 스님들> 사진은 수록하지 않았다. 이후 퍼시벌의 사진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2019년 이 사진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촬영 당시 퍼시벌의 화계사 기행문과 여정을 함께했던 윤치호의 일기 등을 통해 촬영 시기가 1884년 2월 23일 오후라는 사실을 추정하고, 이로써 이 사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스님 사진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와 같은 두 장의 사진을 각각 검토하여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이동인 사진을 바로 잡고, 퍼시벌의 사진과 기록을 통해 한국 근대불교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동인 사진, 퍼시벌 로웰, 화계사, 김옥균, 윤치호, 개화운동, 근대엽서,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I. 머리말

필자는 2013년에 「근대 화계사의 역사와 위상」이라는 논문에서 삼각산 화계사의 근대 역사를 조명한 바 있다. 화계사 출신으로 조선의 근대화에 헌신하였던 이동인과 무불·차홍식, 근대불교 최초의 종단이었던 불교연구회를 주도한 홍월초와 김월해 등의 활동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범패의 성행 사실과 1933년 절에서 진행하였던 한글맞춤법통일안 모임을 통해 화계사의 사격과 위상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올해 2022년 5월 화계사의 이건(移建) 5백 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려 광종(949~975) 때 왕사와 국사를 지낸 법인(法印)국사 탄문(坦文, 900~975)이 삼각산의 부허동에 보덕암(普德庵)을 창건하면서 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522년(중종 17)에 신월선사(信月禪師)가 지금의 화계동으로 옮겨 중창하면서 비로소 화계사(華溪寺)라고 하였다.

강연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과 사진 자료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화승 이동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이 사실 1933년 이후에 촬영된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추론이다. 이 사진의 원본은 사진엽서이다. 그런데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진은 인물 부분만을 남기고, 사진엽서라는 사실을 전하는 하단의 설명문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이 사진은 마치 진영 사진처럼 남게 되었다. 이동인의 행장과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사진엽서의 모델로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활동을 기왕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일별하고, 사진엽서를 자세히 분석하여 사진의 인물은 이동인이 아닌 1930년대의 스님임을 자세히 규명하였다.

두 번째는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1884년 2월 23일에 촬영한 <화계사의 스님들, Buddhist Monks from the Flower Stream Temple>이라는 사진이 현전하는 한국 최초의 스님 사진이라는

견해이다. 이 사진은 1885년 퍼시벌이 출간한 조선 기행문에는 수록되지 않아 앨범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퍼시벌의 후손들이 그의 자료관을 설립하고 디지털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이 사진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간단한 설명뿐이다. 촬영 당시 퍼시벌의 화계사 기행문과 여정을 함께했던 윤치호의 일기 등을 통해 촬영 시기가 1884년 2월 23일 오후라는 사실을 추정하고, 이로써 이 사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스님 사진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이동인 사진을 바로 잡고, 퍼시벌의 사진과 기행문을 통해 약 140년 전의 화계사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두 장의 사진은 화계사의 근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대불교의 실상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개화운동가 이동인 사진에 대한 오해

1. 개화사상과 화계사

이동인은 한국 근대불교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비상(非常)한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다.¹⁾ 그는 근대사회의 격동기였던 1877년 무렵 등장하였다가 1881년 갑자기 사라졌다. 불과 3년간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그는 근대불교의 형성과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역사 소설가로 저명한 신봉승은 이동인의 일생을 다룬 소설을 저술하였고,²⁾ 이를 극본으로 TV 드라마를 제작, 방송하기도 하였다.³⁾ 불교방송 BBS에서는 1995년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이라는 다큐

1) 한상길, 「개화를 향해 달려간 비운의 승려 이동인」, 『불교평론』 2011년 봄.

2) 신봉승, 『이동인의 나라』 전3권, 동방미디어, 2002.

멘터리도 방송하였다.

현재 이동인이라고 하는 두 장의 사진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⁴⁾ 이 두 사진을 모두 이동인이라고 하였으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인물이다. 분명히 다른 인물인데도 이동인에 관한 여러 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두 사진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⁵⁾



< 이동인 사진 ① >

- 3) <찬란한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KBS1TV, 1995.10.~1996.11.23일까지 방영하였다.
- 4) 김광식·윤창화, 『한국불교 100년 : 1900-1999』, 민족사, 2000, p.38.
- 5) ① 신봉승, 『이동인의 나라』 전3권 양장본, 도서출판 선, 2010. ② 「동인·구하·월하스님 선양사업 한다」, 『불교신문』, 2014.2.24. ③ 「이병두의 사진으로 보는 불교 이동인, 승려신분으로 근대화 이끈 선각자」, 『법보신문』 2017.1.3. ④ 「신명호의 동북아 삼국지(17) 고종 밀사 이동인의 오판과 독단」, 『월간중앙』 2018년 6월호.



< 이동인 사진 ② >

가사와 장삼의 승복을 여법하게 갖춰 입고, 염주를 낀 좌상의 전신 사진이다. 이동인은 1881년 3월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진은 1881년 3월 이전에 촬영한 것이 된다. 즉 현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님 사진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진의 인물들은 이동인이 아니다. 이 사진의 원본들은 1933년 이후에 발행한 사진엽서이다.



< 이동인으로 잘못 알려진 사진 ①의 원본 사진엽서(앞면) >

이 사진이 이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한 행장과 활동을 살펴본다. 이동인에 관해서는 일찍이 이광린의 여러 연구를 통해 근대 개화 운동사에서의 그의 위상을 알게 되었고,⁶⁾ 필자는 승려로서의 이동인에 주목하여 근대불교사상(近代佛敎

史上)의 업적을 여러 차례 조명하였다.⁷⁾ 이러한 기왕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인은 법명이 기인(琪仁), 법호가 서명(西明)이다. 그의 활동은 워낙 짧은 기간이고, 세간의 눈을 피해 암암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행장은 전하지 않는다. 출신 사찰도 기록에 따라 범어사, 통도사 등으로 다르게 적고 있으나 통도사 출신인 가능성이 크다.⁸⁾ 1877년 무렵 이동인은 화계사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서 유대치(劉大致, 1831~1884?)와 함께 개화파들에게 불교사상을 가르치고, 개화사상을 배웠다. 이동인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1878년 6월 2일이다. 이날 그는 부산의 일본 정토진중 본원사의 부산별원을 찾아가 일본불교와 인연을 맺으며 개화운동의 첫 문을 열었다.

19세기 중엽 유학적 이념의 한계, 그리고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는 자주 의식으로서 개화사상이 등장하였다. 개화사상의 보급과 전개 과정에

-
- 6) 이광린, 『개화승 이동인의 재일활동』, 『신동아』 1981년 5월호.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pp.2-15.
- 7) 한상길,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_____, 「한국 근대불교와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 『일본불교문화연구』 9,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3.
_____,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 46, 불교문화연구원, 2007.
_____, 「일본 근대불교의 한·중 포교에 대한 연구 - 淨土眞宗 奥村圓心과 小栗栖香頂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_____, 「개화를 향해 달려간 비운의 승려 이동인」, 『불교평론』 46, 2011.
- 8) 1997년에 출간된 『삼소굴 소식』(여주 석명정,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pp.337-338)에 이동인이 당시 정토진중 부산별원의 포교사였던 오쿠무라 엔신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는 鏡峰(1892~1982)스님의 유품이다. 경봉스님은 통도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였으므로 이동인이 통도사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오쿠무라는 이동인의 편지를 후일 그의 재적 사찰인 통도사에 전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 경봉스님이 소장하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한상길, 「근대 화계사의 역사적 위상」, 『대각사상』 19, 대각사상연구원, 2013, p.42.

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다. 그는 역관 출신으로 중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각종의 신서적을 구해와 절친한 친구였던 유대치와 함께 공부하였다. 두 사람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며 조선의 혁신을 꿈꾸었다.⁹⁾

이 둘은 개화사상가 박규수(朴珪壽, 1807~1877)와 결연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규합, 개화사상을 전수하였다. 1870년 무렵 박규수는 자신의 집에 김윤식(金允植, 1835~1922), 박영교(朴泳敎, 1849~1884), 김옥균(金玉均, 1851~1894), 홍영식(洪英植, 1855~1884),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유길준(兪吉濬, 1856~1914), 박영효(朴泳孝, 1861~1939) 등의 엘리트 청년들을 불러 모아 신사상을 가르쳤다. 박규수의 사후에는 유대치가 개화사상의 선양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유대치는 청년들에게 불교사상을 전하는 ‘백의정승’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김옥균 등은 높은 신분에 좋은 가문의 자제로서 고기 먹는 자들이었으나 유대치에게 선도(禪道)를 배운 후 불교에 발심하는 등 당시 서울에 선풍(禪風)이 성행하였다고 하였다.¹⁰⁾ 개화사상은 근대화를 앞당기는 선구적 사상이었으나 보수 전통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모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모임의 장소가 도심과 떨어진 외진 사찰들, 화계사·보문사(성북구)·봉원사 등이었다.

김옥균 등은 개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1874년 무렵 개화당을 결성하였다. 개화당의 결성 목적은 자주적 근대국가의 성립에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을 모델로 설정하였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서구의 사상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대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려는 과정에서 우선 일본불교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의 여러 불교 종파들이 조선에 포교소를 설

9) 『김옥균전』 상권, p.49, 고균기념회, 1944.

10) 『역주 조선불교통사』 6,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0, p.221.

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의 승려들을 이곳에 보내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화승이라 부르는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이 바로 이동인, 무불, 차홍식, 이운고(李允杲) 등이었다. 이들은 박영효의 집과 화계사, 보문사, 그리고 봉원사 등을 거점으로 개화사상의 이론을 공부하고, 신문명을 체득하였다. 특히 화계사는 개화승 4인 가운데 이운고를 제외한 3인의 재적 사찰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이동인이 부산별원을 찾아간 목적은 일본불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알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근대화’를 배워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려는 목적이었다. 그 시작이 일본 정토종의 부산별원 방문이었다. 부산별원은 일본불교의 종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첫 포교소였다. 1877년 10월 부산의 일본 영사관 관사에서 포교를 개시하였고, 책임자는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 1843~1913)이었다. 그는 이후 1897년까지 20년간 일본불교의 최초 포교사로서 한국 근대사와 불교의 전개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당시의 활동을 『조선국포교일지(朝鮮國布教日誌)』와 『조선개교오십년지(朝鮮開教五十年誌)』에 상세히 남겼고, 이를 통해 개화기 불교의 현실과 한일근대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필 수 있다.¹¹⁾

이동인은 부산별원을 찾아가 화계사 삼성암 승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정토진종의 교리를 묻는 등 승려로서의 불교적 관심사만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부산별원을 찾아간 목적은 일본불교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근대문명을 체득하는데 있었다. 오직 관심은 시사와 국제정세 뿐이었다.¹²⁾ 이렇게 인연을 맺은 후 1879년 4월 이동인

11) 한상길, 「일본 근대불교의 한·중 포교에 대한 연구 - 정토진종 奥村圓心과 小栗栖香頂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pp.357-360.

12) “이동인은 奥村의 후의에 감동하여 여러 차례 찾아왔고, 때로는 별원에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였다. 향시 시사를 말하고 국제간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불교에 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선개교오십년지』,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제62권, 민족사, 1996. p.137.

은 오쿠무라의 주선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를 만났다. 그는 일본의 초대 공사로 부임한 하나부사에게 조선과 일본은 형제라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의 도움을 역설하였다.¹³⁾

1879년 9월 이동인은 일본의 화물선을 타고 밀항을 감행한다. 경도의 동본원사에 도착하여 이름을 ‘조야계윤(朝野繼允)’이라는 일본식으로 바꿨다. 신분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는 또 이름을 ‘조야동인(朝野東仁)’으로 쓰기도 하고, 동경에 있을 때는 ‘조야각지(朝野覺遲)’라고도 썼다.

이듬해 4월 정토진중에 출가하여 정식으로 수계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동인을 ‘최초의 친일파 승려’라고 지목하지만¹⁴⁾ 이는 옳바르지 않다. 그의 일본불교 수계는 신분을 감추고, 개화운동을 원활히 실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이후부터 그는 본격적인 개화운동을 실천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은 흥아회(興亞會) 활동,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와의 교류, 주일 영국공사관의 서기관 어니스트 사토(Ernest Satow, 1843~1929)와의 만남, 수신사로 동경에 온 김홍집(金弘集, 1842~1896)과의 만남 등이다. 이러한 활동에 관해서는 이광린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규명되었다.

이동인은 1880년 9월 김홍집과 함께 귀국하여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만났다. 민영익은 당대의 세도가였지만,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동인을 국왕 고종에게 안내하였다. 조선말 하층 신분으로 취급받던 승려가 국왕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고종에게 일본에서 본 근대문명의 실상을 설명하고, 조선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였을 것이다. 짧은 만남이었으나 고종은 이동인

13) 하나부사가 이동인과의 대화를 기록하여 「東仁聞書」라는 문건을 남겼고, 현재 일본 동경도립대학도서관에 『花房文書』라는 이름으로 전한다. 이광린,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pp.2-15.

14) 임종국, 「초기종교침략과 친일파」, 『인물계』, 1989년 1월호, p.153. 임혜봉, 『친일불교론 상』, 민족사, 1993, pp.48-50.

을 신뢰하였고, 그를 일본 주재 청국 공사 하여장(何如璋, 1838~1891)을 만나는 밀사로 임명하였다.

11월 이동인은 동경에서 사토에게 러시아가 조선을 침공할 조짐이 있으니 영국이 서둘러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가서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1월 18일에는 청국 공사 하여장에게 고종의 밀서를 전달하며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이동인은 한미수호조약의 조약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1880년 2월 이동인은 통리기무아문의 참모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임무는 무기와 군함 등을 일본에서 구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던 3월 9일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 누구도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머물고 있던 민영익의 집에 궁궐의 문기수(門旗手)가 찾아와 국왕의 호출이라고 데리고 나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 암살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동인은 3년이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개화기 정치와 외교의 무대에서 활동하였다. 1878년 6월 그에 관한 첫 기록이 등장한 이후부터 1881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개화운동에 투신하였다. 일본을 두 차례나 왕래하며 개화운동을 펼치던 그는 1881년 3월 9일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개화를 반대하였던 수구세력의 소행이었는지, 개화파내의 마찰 때문이었는지 역사적 진실은 알 수 없다. 이처럼 이동인은 개화기 격동의 무대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3년 후 그가 없는 가운데 개화당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이제 개화는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하는 ‘짐승의 짓’으로 전락하였고, 외세에 의한 왜곡된 근대사가 전개되고 말았다.¹⁵⁾

이상과 같은 근대불교의 선각자 이동인이 세인의 관심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의 사진이다. 각종 사진첩이나 언론 등에서는 이

15) 한상길, 앞의 글, pp.337-338.

사진의 주인공을 이동인이라고 한다.¹⁶⁾ 사실 필자도 얼마 전까지 별다른 의심없이 이 <이동인 사진 ①>을 이동인이라고 인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사진의 원본인 사진엽서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동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수행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원각사의 고문헌과 사진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의 사진엽서를 조사, 촬영하게 되었다. 바로 <이동인 사진 ①>의 원본이다. 이 사진엽서는 가로 14.2cm, 세로 9cm의 크기이다.¹⁷⁾ 앞면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가사와 장삼 등의 승복을 입고, 반투명의 감투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머리는 삭발이지만 다소 짧게 기른 모습이다. 좌우에는 탁자를 두고 그 위에 화병과 귀중품 가방, 염주 등으로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실내 스튜디오에서 격식에 맞게 의관을 정제(整齊)하고 주변 장식까지 잘 갖추어 촬영한 모습이다.¹⁸⁾

그러나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이동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제작된 사진엽서라는 사실이다. 즉 사진의 하단에 간단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데 ‘(朝鮮風俗) 僧侶 No.142 A PRIEST OF COREAN’이라고 하였다.

16) YouTube 등의 미디어에서는 이동인을 ‘친일파 스파이’, ‘영국의 이중스파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자극적 수식어를 남발하며 예외 없이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17) 이 사진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물명, ‘사진엽서, 조선풍속 승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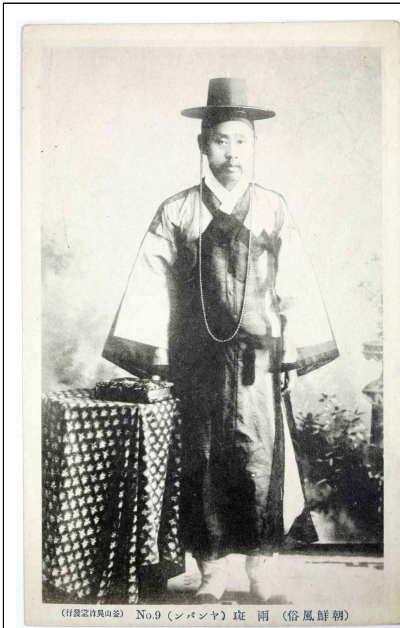
18) <이동인 사진 ②>의 원본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좌상의 인물과 합장한 자세, 주위의 장식 등에서 보면 <사진 ①>과 <사진 ②>는 사진관의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진엽서 제작용으로 촬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NO.142 A PRIEST OF COREAN. 侶僧 (俗風鮮朝)

< 이동인으로 잘못 알려진 사진엽서의 설명문 >

여기에 명기한 ‘朝鮮風俗’은 이 사진엽서 시리즈의 제목이고 ‘No.142’는 시리즈의 일련번호이다. 즉 이 엽서는 ‘조선풍속이라는 엽서 시리즈의 제142번째, 승려’라는 설명이다. 당시 ‘조선풍속’ 시리즈 사진엽서가 많이 발행되었다. 현전하는 다른 예를 들면 <朝鮮風俗 兩班 No.9>, <朝鮮風俗 妓生 No.11>, <朝鮮風俗 婦人の水運び No.17>, <朝鮮風俗 美人 No.63> 등이다.

< (朝鮮風俗) 시리즈의 사진엽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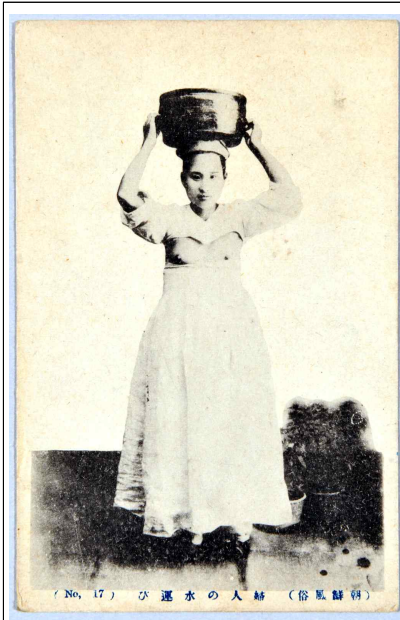
(行發堂吉英吳山監) No.9 (ンパンヤ) 兩班 (俗風鮮朝)

(朝鮮風俗) 兩班 No.9



(行發店吉英吳山監) No.11 妓生 (俗風鮮朝)

(朝鮮風俗) 妓生 No.11



(朝鮮風俗) 婦人の水運び No.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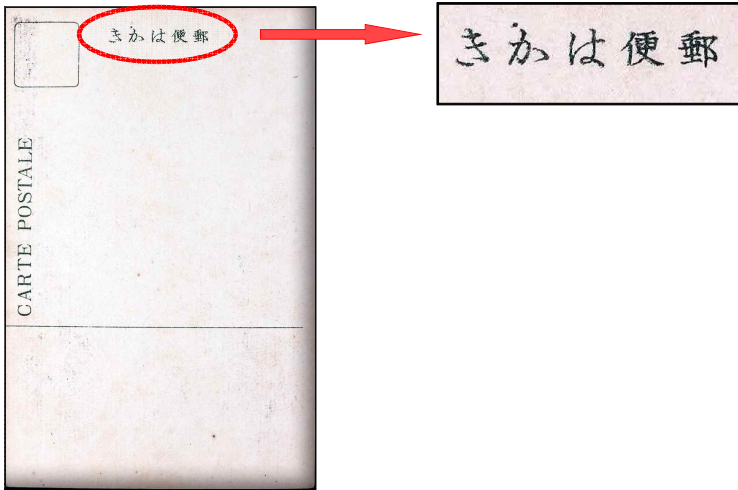
(朝鮮風俗) 美人 No.63

이 가운데 <이동인 사진 ①>은 <조선풍속 양반 No.9>와 매우 흡사한 구도와 장식을 보인다. 즉 의관을 정제한 인물 오른쪽에 탁자를 두고 그 위에 책으로 장식한 스튜디오 사진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이동인 사진 ①>은 다른 <조선풍속 시리즈> 사진엽서와 같은 시기에 촬영,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진엽서가 제작된 시기는 1933년 이후라고 한다. 조선총독부는 1933년 2월 15일에 체신성령(遞信省令) 제4호로 ‘사진엽서’라는 의미의 일본어 ‘きかは便郵’를 ‘きかは便郵’로 ‘か’에 탁음을 붙여 ‘か’로 개정하였다. 이후의 엽서들은 모두 ‘きかは便郵’로 표기하였다.¹⁹⁾ 사진엽

19) 신동규, 「일제침략기 한국 사진그림엽서의 탄생과 엽서의 분류 및 시대구분법에 대한 소고」, 『일본문화연구』 7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9, p.226.

서의 뒷면에 분명히 ‘きかは便郵’라고 탁음 ‘か’가 인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진엽서는 체신성령이 반포된 1933년 2월 이후 경성에서 제작한 것이다.



< 이동인으로 잘못 알려진 사진 ①의 원본 사진엽서(뒷면) >

두 번째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이동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활동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동인이 세상에 등장한 시기는 1878년 6월부터 1881년 3월까지의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다. 개화파들은 수구 전통의 시대에서 남의 눈을 피해 가며 몰래 회합하였다. 화계사·봉원사·보문사 등의 사찰이 이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은밀한 모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밀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동인이 1878년 부산의 정토진종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때는 통도사라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화계사 삼성암에서 왔다고 하는 등 명확하지 않게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이해된다. 또한 그는 일본에 밀항해서는 신

분을 감추기 위해 ‘조야계윤(朝野繼允)’, ‘조야동인(朝野東仁)’, ‘조야각지(朝野覺遲)’ 등의 가명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그가 사진관 스튜디오에서 모델이 되어 승복을 갖추고, 염주와 경전을 든 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사진이 언제부터 이동인으로 와전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근대 초기에 사회적으로 활동한 승려들이 드문 현실에서 흑백의 오래된 승려 사진이므로 이동인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누군가 사진엽서 원본이 아니라 하단의 엽서 제목을 삭제하고 인물사진만을 남겨 놓음으로써 의심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III. 한국 최초의 스님 사진, 화계사 스님들

1. 퍼시벌 로웰의 화계사 기행

1884년 2월에 촬영한 화계사 스님들의 사진이 있다. 화계사의 보화루(寶華樓) 앞에 선 세 명의 스님 모습, <Buddist Monks from the Flower Stream Temple, 화계사의 스님들>²⁰⁾이다. 가사와 장삼을 갖추고 선 채로 합장하고 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이 1884년 2월 22일부터 24일(양력)까지 3일간 화계사에 머물며 직접 찍었다. 바로 이 사진이 현재까지 전하는 우리나라 스님의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퍼시벌 로웰은 미국의 부호 가문 출신으로 1883년 12월 조선에 입국하였다. 젊은 시절 동양의 신비에 매혹하여 사업을 그만두고 극동의 언어와 풍속을 배우기 위해 주일 외교대표로 일본에 10년간 체류하였다.

20) http://library.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1_x292.jpg

그는 1883년 8월 일본에 있던 그는 한미수호조약 체결을 위해 미국에 처음으로 파견되는 조선의 수교 사절단, 보빙사(報聘使)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1883년 8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3개월의 일본 - 미국 왕복 여정에 참찬관(參贊官)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홍영식(洪英植)이 보빙사의 부대신(副大臣)을 맡아 여정을 함께 하였다. 홍영식은 귀국 후 국왕에게 그에 관해 보고하였다. 고종은 그의 노고에 국빈으로 초청하였다. 퍼시벌은 12월 14일 무렵 마침내 조선에 입국하여 국빈 대접을 받았다.²¹⁾

이후 3월 중순까지 3개월여 동안 우리나라 각지를 방문하며 기행문을 쓰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듬해 1885년 기행문을 정리하여 미국에서 412쪽 분량의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 a sketch of Korea by Percival Lowell*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²²⁾ 본문 398쪽, 부록 2쪽, 색인 8쪽이다. 본문에 2장의 지도, 25장의 고화질 사진과 16장의 목판삽화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조선의 기후, 제물포, 서울, 정부의 조직, 여성, 법, 종교,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잘 서술하고 있어 당시 미지의 나라 조선을 이해하는 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1886년과 1887년에 각각 2판과 3판이 출간되었다.

퍼시벌이 국내에 소상하게 알려진 것은 1982년이 처음이었고, 1986년 조경철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²³⁾ 1994년에는 그에 관한 독립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경철은 2001년 앞의 번역서를 보완, 재발간하였다. 그는 일찍이 1978년에 이 책을 처음 접했지만 천문학자로서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후 퍼시벌의 다른 저서 『일본 기행 사진첩』 중에 고종의 어진을 비롯한 100여 년

21) 정영진, 「퍼시벌 로웰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한국 스케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pp.42-43.
 22) Percival Lowell,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 a sketch of Korea by Percival Lowell*, Boston, Ticknor and company, 1885.
 23) 퍼시벌 로우웰 저, 조경철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광문화사, 1986.

전의 조선말기 풍물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 책들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한다.²⁴⁾



< 1883년 9월 미국의 보빙사 일행 >

(뒤줄 좌) 무관 현홍택, 무관 최경석, 수행원 유길준, 수행원 고영철,
수행원 변수
(앞줄 좌) 부사 홍영식, 정사 민영익, 서기관 서광범, 퍼시픽 로웰

이를 계기로 번역에 착수하여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번역하면서 “(퍼시벌은) 예리하고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각종 풍속을 당시로서는 그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조선 기행문에 담아 냈다.”고 평가하였다.²⁵⁾ 이후 그가 남긴 조

24) 조정철은 “이러한 귀중한 책을 116년 만에(2001년)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된 역자의 기쁨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여 자신이 1986년에 출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퍼시벌 로웰 지음·조정철 옮김, 『웁긴이의 말』,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pp.5-7.

25) 『웁긴이의 말』,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앞의 책, p.6.

선말 개화기의 기록과 사진은 다양한 시각에서 주목을 받으며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이 번역서를 읽었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격동기의 역사와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책에 담긴 퍼시벌의 조선 불교에 대한 감상과 사진을 흥미롭게 읽었다. 그러나 제32장 <화계사 가는 길>, 제33장 <사원에서의 겨울 향연>에 수록한 화계사의 기록은 심드렁하게 읽었다. 왜냐하면 낮선 이방인이 양반 고위 관료들을 따라 기생과 함께 경치 좋은 산사에 놀러 가서 승도를 부리며 한바탕 놀았다는 자라는 불교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영 마뜩잖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 화계사 스님들 >
1884년 2월 23일, Percival Lowell 촬영

그러다가 얼마 전 화계사의 자료를 다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사진을 발견하였다. 세 명의 스님이 다소곳하게 합장하고 정면을 바라

보는 생생한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 사진을 계기로 다시 기행문을 찾아보니,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안마당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오후가 지나갔다. 같은 배경에 목어·승려·배우들의 모습을 함께 담았는데 승복 차림의 승려들은 합장한 자세를 취했다. 대체로 승려들의 표정은 어리석거나 교활해(stupid or sly) 보이기 쉬운데 그들은 상당히 호감을 주는 표정이었다. 극동 승려들의 얼굴에는 사실상 어떤 이유에선지 통상의 교활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지혜롭고 선량해 보이기만 했다. 기대에 찬 얼굴들이 가로수처럼 줄줄이 늘어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도 없었거니와 그들을 뒤에 서도록 할 수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⁶⁾

퍼시벌은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감상을 이처럼 자세하게 남겼다. 화계사의 스님들을 ‘호감을 주는 표정’, ‘지혜롭고 선량해 보이는’이라며 호평하였다. 그 역시 서양인이 동양인을 보고 느끼는 피상적 느낌으로 ‘교활’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극동[한국과 일본]의 승려들에게는 그러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퍼시벌이 촬영한 조선의 사진은 현재 80여 장이 남아 있다.²⁷⁾ 이 중에서 불교와 관련있는 사진은 모두 6장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 <화계사의 스님들>, <화계사의 관료들>, <유랑극단>, <길 위의 가회 ①·②> 등이다. 그는 1885년 책을 출판하면서 25장의 사진을 수록하였는데, 위의 불교 관련 사진 중 <화계사의 스님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5장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화계사의 스님들> 사진은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책에 수록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일찍 현전하는 가장 오래



26) 퍼시벌 로웰 지음·조경철 옮김, 앞의 책, 「사원에서의 겨울 향연」, p.289.

27) 미국 보스턴미술관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60장이 소장되어 있고, 2004년에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목록만을 간단히 정리하였다고 한다. 정영진, 「페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60, 한국기록학회, 2019, pp.241-242.

된 한국 스님의 사진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다.

이 사진은 2019년에야 국내에 알려졌다.²⁸⁾ 사진은 현재 미국 아리조나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 있는 로웰천문대(Lowell Observatory) 퍼트남자료관(Putnam Collection Center)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²⁹⁾ 구체적으로는 <Research>, <library> 항목에서 'Korea'로 검색하면 전체 67장의 사진이 나온다.³⁰⁾ 이 가운데 화계사 관련 사진은 다음의 표와 같이 모두 5장이다.

Lowell Observatory의 화계사 관련 사진

번호	call_num	content	사진
1	x292	Buddhist Monks from the Flower Stream Temple / 화계사의 스님들	
2	x287	The fragrant Iris with ? Are they at the Flower Stream Temple? / 화계사의 관료들	
3	v222	Clowns with drum in front of building entryway	

28) 정영진,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앞의 글, p.268.

29) <http://library.lowell.edu>

30) 67장 중 2장은 조선과 관련없는 일본 촬영 사진이라고 한다. 정영진,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앞의 글, pp.244-245.

		/ 화계사의 광대들	
4	x251	The Fragrant Iris, a Korean geisha / 기생과 마부(화계사 가는 길) ①	
5	x273	The Fragrant Iris, a Korean geisha / 기생과 마부(화계사 가는 길) ②	

* 표의 <call_num>과 <content>는 홈페이지의 구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한글 설명은 필자가 붙임

사진들은 대부분 5×8인치 흑백 유리건판(b&w 5×8 glass negative)으로 인화된 모습이다. 사진에 따라 좌우가 반전된 경우가 적지 않다. 위의 사진 5장은 1884년 2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진 1은 목어가 걸려 있는 보화루 앞에 선 3인의 스님이다. 가운데 인물이 가장 연장자로 보이고 다음으로 오른쪽, 왼쪽 인물 순이다. 즉 가운데 인물은 삭발 머리를 다소 기른 모습에 투명한 감투를 썼고, 오른쪽 인물 역시 짧은 머리인데, 왼쪽 인물은 삭발한 모습이다. 승려의 두발은 삭발이 원칙이지만 당시는 짧은 머리가 허용된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이동인 사진 ①, ②> 승려 역시 삭발이 아니라 짧은 머리에 감투를 쓴 모습이었다.

사진 2는 퍼시벌 일행과 함께 절을 찾은 조정 관료들이고,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기생인 듯하다. 사진 3은 광대들의 모습이다. 10명의 광대가 북과 팽과리 등의 악기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 4와 5는 화계사로 가는 도중에 찍은 기생과 마부의 모습으로 22일의 모습이다.

퍼시벌과 화계사 유람을 함께 한 인물들은 김옥균, 윤치호, 서광범, 홍영식 등이다. 일정을 함께한 윤치호의 일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84년 2월 22일(금, 맑음, 삼가다)

이날 오후 1시에 사서기(司書記)·로웰·최미산(崔薇山, 慶錫)·이사관(李司官)·정사관(鄭司官)과 함께 기생 4인을 데리고 화계사에 가다. 화계사에서 자다.

1884년 2월 23일(27일, 토, 맑음, 삼가다)

화계사에서 지내다. 밤에 영월(影月)과 같이 자다. 아침에 금석(琴石, 洪英植)이 왔다가 저녁 5시경에 돌아가다. 오사(吳師, 吳長慶)가 떠나가다.

1884년 2월 24일(28일, 일, 맑음, 삼가다)

아침 11시경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화계사를 떠나 성안으로 들어오다. 시간은 오후 2시경이다. 서기관(書記官)과 같이 잠시 로웰씨의 숙소에 갔다가 공사관으로 돌아오다.³¹⁾

1931년 11월 12일(목요일, 맑고 따뜻함)

서울 집이다.

1884년 가을, 김옥균 씨와 그의 동료인 서광범, 홍영식이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씨에게 동대문 밖 절(화계사)에서 조선식 식사를 대접했다. 주미 공사관이었던 스쿠더(Scudder)씨도 그때 참석했다. 기생도 몇 명

31) 『윤치호 일기』 제1권,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 1884년 1월 28일~2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있었는데, 향란(香蘭)이라는 기생이 퍼시벌 로웰 씨를 시중들도록 배정되었다. 일행이 사원으로 걸어가는데 도중 저녁 공기가 다소 쌀쌀했다. 스쿠더씨가 친절하게도 어떤 기생에게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었다. 영월(影月)이라고 기억한다. 그 기생은 스쿠더씨의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는 대신에 외투를 땅에 던져버렸다. 스쿠더씨는 외투를 주우면서 ‘빌어먹을’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화를 냈다.

스쿠더씨는 비종교인인데 확실히 그때 상황은 그런 욕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스쿠더씨는 그 기생이 단순히 조선 양반의 예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옛날 서당에서 가르치는 조선 양반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르면, 어떤 대접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체면을 깎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식한 여자들이 그 기생이 외투를 땅에 던지듯 나의 사려 깊고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땅에 던져버릴 때면, 스쿠더씨가 그 상황에서 했던 대로 나도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싶었고,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³²⁾

윤치호(尹致昊, 1866~1945)는 대한제국기에 중추원 의관, 한성부 관운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이었다. 1881년 동경에 유학하면서 개화파 인사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등과 교류하였다. 유학 중에 영어를 익혀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Foote, L. H.)의 통역관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주사로 임명되어 푸트와 개화파 간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1884년 당시 19세의 젊은 나이로 영어 소통이 가능했으므로 퍼시벌을 화계사로 안내하였던 것 같다. 그가 남긴 일기와 회고록을 통해 퍼시벌 일행의 화계사 유람에 관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화계사 유람은 1884년 2월 22일 오후 1시부터 24일 오전 11시까지였다. 참석자는 퍼시벌을 비롯하여 주미 공사관 스쿠더, 그리고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등이었다. 일행으로는 사서기(司書記), 최미산(崔薇山, 慶錫), 이사관(李司官), 정사관(鄭司官), 그리고 기생(藝妓) 4명과 광대패 10

32) 『윤치호일기』 제8권,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여 명, 일본인 요리사 1명이었다.

이상의 일기를 통해 퍼시벌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사진 2의 조정 관료는 이사관, 최미산, 정사관 등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이사관은 외야문(外衙門)의 사관 이시렴(李時濂)이라고 한다.³³⁾ 배경의 건물은 현재의 조실채이고, 앞쪽의 연못은 남아 있지 않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기생 향란(香蘭, Fragrant Iris)이다. 사진 4와 5는 화계사 가는 길에 찍은 향란과 마부이다.

2. 화계사에 간 이유

퍼시벌의 화계사 유람은 사찰에 가보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고종이 국민으로 초청한 인물이었으므로 한겨울의 추운 날씨였지만 여러 관료가 동행하였다. 그는 화계사 유람의 목적과 준비 과정, 가는 길의 여정, 화계사의 전경과 승려, 예불 모습, 광대들의 공연 등을 상세하고 유려한 글로 남겼다.

서울에는 사원 같은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종교의식은 물론 종교적 건축물을 보려면 시골로 가야 한다. 오늘날 조선에 남아 있는 수도원의 절반은 불교 사원인 절이다. 대부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고 거기서 불교는 쓸데없는 사람들의 방해로 받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영광을 지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서울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높은 삼각산 정상의 동쪽 지맥 위에 있는 절이다. 비교적 서울과 가까이 자리 잡은 덕분에 그곳은 상당한 명성을 지니게 됐는데, 그 명성은 주로 종교 외적인데 있다. 요컨대 그곳은 즐거운 소풍 장소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은 본래 지니고있는 신성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절을 주연의 장소로 택하는 것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흔한 일이다.

33) 정영진, 「퍼시벌 로웰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 한국 스케치』 연구」, 앞의 글, p.182.

내가 조선의 사원을 보고 싶다 해서 가게 된 곳은 부처를 섬기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정신(眞臣)을 모시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수단은 어느 정도 목적을 합리화 한다.”는 조선인들의 생각이 못마땅하지는 않았다.

일행은 출발에 앞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다른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챙기고, 악사와 몇 명의 가희 및 일본인 요리사를 대기시켰다. 악사와 요리사 그리고 준비된 짐들은 먼저 보내고, 유쾌한 친구인 가희들은 우리와 동행하기로 했다. … (중략) …

정오가 지나자마자 우리는 출발 준비를 끝내고 가마속으로 들어갔다. 친구들과 가희, 하인들은 서로 좋은 동료가 되어 나란히 걸어갔다. 대지는 여기저기 눈에 덮여 있었고, 하늘은 하늘대로 높고 푸르렀다. 북쪽 지방의 겨울 햇빛처럼 모든 것이 선명히 빛났고 날씨도 맑았다. 조금 추운 것이 흠이었지만, 어쨌든 기분 좋게 하는 날씨였다.³⁴⁾

이 글에서 보듯이 화계사 유람은 단순히 놀러 가기 위함이 아니라, 피시벌이 “내가 조선의 사원을 보고 싶다 해서 가게 된 곳”이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화계사는 소풍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도심에서 화계사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도 ‘소풍 장소’로 유명한 사찰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정릉의 흥천사가 그렇다. 굳이 가까운 곳을 두고 왜 먼 화계사 행이 결정되었을까 궁금하다. 그것도 추운 한겨울에 말이다. 피시벌은 다만 조선의 사원을 보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화계사로 정한 것은 이 유람을 함께 한 인물들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은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윤치호 등이다. 물론 윤치호 일기에 등장하는 사서기·최미산·이사관·정사관 등도 있지만 이들은 하급 관리였으므로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결국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윤치호 4인으로 좁혀지는데 아마도 김옥균이 아닐까 추정된다. 왜냐하면 김옥균은 개화파의 지도자로서 이미 1874년 이후 개화파들의 집결지로서 화계사 등에 왕래하고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34) 「화계사 가는 길」,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앞의 책, pp.277-278.

동인은 화계사에 머물며 이들과 개화사상을 공부하고 개화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김옥균과 서광범, 홍영식은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이미 화계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퍼시벌을 이곳으로 안내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화계사의 전각과 예불

퍼시벌은 일본 각지를 유력하며 일본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세심하고 해박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신도(神道)를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저술하였다.³⁵⁾ 조선에서는 3개월의 길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그는 조선의 문화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을 지녔고, 불교도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역사에 따르면 몇 세기 전 조선에는 두 당파가 있었는데 한쪽은 유교, 다른 한쪽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불교도들이 지지하는 쪽이 패배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 이후 불교는 단지 산속 깊은 곳에서만 숨을 쉬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는 완전히 추방당했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도시에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자연과 벗하는 산속에서는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찰들은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던 큰 도시의 사찰 못지않게 중요했다.

아무튼 도시에서의 불교 추방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해 망각하게 만들었고 둘째, 고위층 신도들이 없어지고 하층 계급 신도들만 남게 함으로써 불교를 약화시켰다. 자연 기부금도 횡수나 양에 있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국 조선에서 불교는 일본에서처럼 활발하고 힘 있는 종교가 되는 대신 단지 한때 존재했던 유물로만 명맥을 유지했다. 현재 조선에서는 산속 깊은 곳에서나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듯이 쓸쓸히 남아 있는 사찰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특징들에

35) 정영진, 「퍼시벌 로웰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한국 스케치』 연구」, 앞의 글, p.22.

관해서는 서울 북쪽의 어느 절에 들렀을 때의 일을 회고할 때 언급한 기회가 있으리라.³⁶⁾

이와 같이 한양 도심에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꽤 그럴듯하게 이해한 듯하다. 이러한 설명은 ‘서울 북쪽의 어느 절’, 즉 화계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퍼시벌은 절에 도착하자마자 경내를 꼼꼼히 관람하였다.

우리는 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안마당 바깥에서 끝나 있었고, 계곡을 향한 한쪽 면에는 돌담이 쌓여 있었다. 안마당 전면에 있는 건물은 주요 건물로 그 한가운데가 식당이었으며, 바로 이곳이 우리를 위해 제공되었다. 뒷마당을 사이에 두고 건물 맞은편으로 두 채의 건물이 있었다. 흔한 말로 하면 이들은 서로 다른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안에는 청동불상·북·인조화 등이 가득했다. 바깥마당에는 수도승들이 거주하는 더 작은 집들이 반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장식은 사치스럽지 않았다. 다만 안뜰에서 옆으로 비껴선 한 건물에는 다소 신기한 물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조각돼 머리와 꼬리 부분이 천장에 걸려 있는 커다란 나무 물고기였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절은 4동의 전각과 요사채 여러 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건물’은 대웅전이고, ‘청동불상과 북, 인조화로 가득 찬 뒷마당의 두 채 건물’은 명부전과 삼성각이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물고기가 걸려 있는 건물’은 보화루이다. 이 건물은 용선 도해(龍船渡海)와 범운 취견(梵雲就堅)이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시주를 받아 1866년부터 1870년 사이에 완공하였다.³⁷⁾ 목어도 이때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목어를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듯, 유람 이틀째인 2월 23

36) 「종교의 부재」,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앞의 책, pp.154-155.

37) 오경후, 「조선후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화계사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20,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33-34.

일 이를 배경으로 스님들과 광대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퍼시벌은 저녁 예불에도 참석하였다.

저녁을 기다리며 주위를 산책하는 동안 안뜰에 있는 두 건물 중 더 큰 쪽에서 극동의 저 유별나고 독특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선의 종은 안이 아니라 밖에서 치는데 이 방법은 운율을 조절하는 데 더 용이하다. 종소리는 처음에 매우 느리게 시작되어 점점 빨라진다. 타종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연속적으로 쏟아지다가 마지막에 세 번을 더 치고 끝이 났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다시 반복됐다. 그것은 안뜰의 두 건물 중 더 큰 곳에서 예배를 본다는 알림이었다. 그곳으로 몰려간 우리는 건물과 달은 가장 높은 계단에 조용히 올라섰다. 신발을 벗지 않고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범의를 훌륭하게 차려입은 열두 명 가량의 수도승이 엄숙하게 큰 원을 그리며 특유의 염불을 외우는 중이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자그마한 수련승이 북을 치며 앉아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만큼 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나타냈다. 개중에 이미 얼마쯤 낯을 익힌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껌뻍해 보이기도 했다. 읊조리고 있는 염불의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고 보면, 이러한 행동은 납득 못할 바도 아니었다. 문자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건 간에 그들이 암송하는 것은 발음이 틀린 산스크리트어였다. 의식 자체도 특별히 엄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품위 없는 예배라고는 할 수 없었다.³⁸⁾

이러한 저녁예불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일상의 예불과 다름없다. 당시 대웅전에서 12명 가량의 스님이 큰 원을 그리며 염불을 외다. 구석에는 ‘수련승’ 사미가 앉아서 북을 치는데 이러한 의식은 엄숙하지는 않지만 결코 품위 없는 예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화계사는 조선 후기 이후 근대까지 범패와 불교 의례의 중심 도량으로 유명하였다. 1930년대 범패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바로 화계사와 경

38) 「화계사 가는 길」,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앞의 책, pp.282-283.

기도 장단의 화장사(華藏寺) 등이었다. 화계사에는 얼마나 재가 많았는지, “화계사에서 부목을 하면 공양재를 할 줄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³⁹⁾ 1922년 무렵 절의 대중은 비구·비구니·사미승까지 합해 모두 53명에 달했다.⁴⁰⁾ 범패를 비롯한 불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어 각종의 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근대불교의 포교사로 유명했던 대은 태흡(大隱泰洽)의 증언에서 이 무렵 화계사의 범패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경기도 장단 화장사와 양주 보광사에서 응봉(應峰)·우운(雨雲) 등에게 범패를 배우고 이들을 따라 ‘재반이’를 하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화계사의 가사불사 회향 법회에 참석하였다. 고승들이 가사를 수한 모습을 보고 가사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용기 내어 시주금을 낸 상궁에게 욕심을 말했다. 그러자 상궁은 “어린 재반이가 무슨 가사냐. 가사는 법사나 강사 같은 큰 스님이 입는 거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사, 강사 큰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⁴¹⁾ 근대 시기 이러한 화계사의 의례 전통은 이미 조선 중기 이후 면면이 계승되어 온 것이다. 안진호(安震湖)는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서 화계사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화계사는 왕실의 비호 아래 경산(京山) 사찰의 특색을 살리며 확실히 발전하여 불교 의식을 담당하는 범패승의 양성을 도맡게 되었다.”⁴²⁾라고 하였다.

피서별이 방문하였던 1884년의 화계사는 범패승의 양성소라고 부를 정도로 의례가 번성하고 있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12명의 스님이 진행하는 저녁예불은 ‘뜻도 모르는 산스크리트어의 틀린 발음’으로 진행

39) 「한국 범패의 양대 산맥 벽웅스님」, 『현대불교』, 2000.4.5.

40) 안진호, 「三角山華溪寺略誌」, 「大雄殿改金佛事大衆同參記」.

41) 김대은, 『신앙의 등불』, 『대은대중사문집』 제2권, 흥원사, 2009.

42) 이철교, 「서울 및 근교사찰지, 봉은본말사지」 제3편, 『다보』 1994년 겨울호, 대한불교진흥원, p.5.

하는 염불이었다. 문외한의 자의적 편견일 뿐이다. 이 염불과 의례가 조선불교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소중한 수행문화였고, 결국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이동인과 화계사 스님들 두 장의 사진을 통해 근대불교의 한 실상을 이해하였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동인의 사진은 그저 1930년대의 한 스님이었고, 1884년 2월 23일에 촬영한 <화계사의 스님들> 사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스님의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동인은 근대불교의 인물 가운데 매우 이채로운 인물이다. 승려의 신분이었으나 활동무대는 불교계나 사찰이 아니라 개화 격동기의 중심지였다. 출생과 출가 시기, 출가 사찰 등도 명확하지 않다. 1877년 개화운동의 최일선에 갑자기 등장하여 개화파의 일본교섭 첩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에 두 차례나 밀항하여 유력 정치가를 만나고, 중국과 영국의 외교관에게 러시아의 조선 침탈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였다. 출가수행자 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주와 근대화에 앞장선 개혁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러한 그의 위상에 일조한 것이 바로 그의 사진이다. 근대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의 사진이 버젓이 전하고 있으니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진은 이동인의 사진일 수가 없다. 세간의 눈을 피해 일본에 밀항하고, 이름을 바꾸며 귀국해서는 국왕의 밀사로 임명된 그가 세상 사람 다 보란 듯이 모델이 되어 사진관에서 카메라 앞에 설 수는 없다. 사진의 주인공이 이동인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진의 원본이 1933년 이후에 발행한 사진엽서라는 사실이다. 이동인이라며 매스

컴 등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한결같이 사진엽서의 하단에 표기된 ‘(朝鮮風俗) 僧侶 No.142 A PRIEST OF COREAN’이라는 설명을 삭제하고 인물만을 남겨 놓았다. 누군가의 의도인지 미숙함인지 모르지만, 그 결과 사진의 주인공이 이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화계사 스님들〉 사진은 2019년에 국내에 소개되었다. 1884년에 촬영하였지만, 이듬해 1885년에 출간한 기행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되었다면 훨씬 일찍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진은 현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님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백여 년 전 스님의 복식과 두발, 모자 등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 더구나 퍼시벌은 기행문에서 사진을 찍을 당시 화계사의 전각과 예불, 스님에 관한 인상을 자세히 적고있어 보다 입체적인 조명을 가능하게 한다. 눈 밝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진의 세 스님이 누구인가는 규명하지 못했다.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Percival Lowell,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 a sketch of Korea by Percival Lowell*, Boston, Ticknor and company, 1885.
- 퍼시벌 로웰 지음·조경철 옮김,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 『삼소굴 소식』, 역주 석명정,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1997.
- 『윤치호일기』,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 『조선개교오십년지』,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제62권, 민족사, 1996.
- 김광식·윤창화, 『한국불교 100년 : 1900-1999』, 민족사, 2000.
- 신동규, 「일제침략기 한국 사진그림엽서의 탄생과 엽서의 분류 및 시대구분법에 대한 소고」, 『일본문화연구』 7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9.
- 오경후, 「조선후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화계사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20,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이광린, 『개화승 이동인의 재일활동』, 『신동아』 1981년 5월호.
- _____,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 이철교, 「서울 및 근교사찰지, 봉은본말사지」(제3편), 『다보』 1994년 겨울호, 대한불교진흥원.
- 정영진,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60, 한국기록학회, 2019.
- 정영진, 「퍼시벌 로웰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한국 스케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한상길,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 _____,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 46, 불교문화연구원, 2007.
- _____, 「일본 근대불교의 한·중 포교에 대한 연구 - 淨土眞宗 奥村圓心과 小栗栖香頂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 _____, 「개화를 향해 달려간 비운의 승려 이동인」, 『불교평론』 2011년 봄.

- _____, 「한국 근대불교와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 『일본불교문화연구』 9,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3.
- _____, 「근대 화계사의 역사적 위상」, 『대각사상』 19, 대각사상연구원,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First Photos of the Monks in Korea

Han, Sang-gil

(Assistant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modern Buddhism through two photos. The first is a photo of what has been known so far as enlightenment activist Lee Dong-in. Recent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original of this photo is a postcard published after 1933. Existing photos left only the person part of the postcard, and the description at the bottom to convey the fact that it was a postcard was deleted. As a result, this photo remained like a portrait of a monk. Looking at Lee Dong-in's thoughts and activities, it is absolutely impossible for him to appear as a model for postcards. By analyzing the postcards, it was determined in detail that the person in the photo was not Lee Dong-in, but a monk from the 1930s.

The second is a photo of <Monks at Hwagye-sa Temple> taken on February 23, 1884 by American astronomer Percival Lowell. This photo was not included in the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ritten by Percival in 1885. It remained only as a collection on his album, but recently released on the Lowell Observatory's website. It is presumed to be the oldest surviving photo of a monk in Korea.

It was in 2019 that Korean researchers began to take an interest in Lowell's photos. Based on Percival's travelogues at Hwagye-sa Temple and the diary of Yun Chi-ho, who traveled with him at the time of filming, it is estimated that the filming took place in the afternoon of February 23,

1884, thereby claiming that this photo is the oldest extant photo of a Korean monk. It is hoped that these two photos will be reviewed to correct the previously misunderstood photos of Lee Dong-in, and help to understand the true face of Korean modern Buddhism through Percival's photos and records.

Key words

The first photos of the monks in Korea, A photo of Lee, Dong-in, Percival Lowell, Hwagye-sa Temple, Kim, Ok-geun, Yun, Chi-ho, The Enlightenment Movement, modern postcard,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논문투고일 : '22. 10. 28.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